

30여년 국내전선산업 선도

1962년 한국케이블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된 LG전선은 금성사와 금성전선, 그리고 1995년 지금의 LG전선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30여년동안 국내 전산산업을 주도해 왔다.

LG전선은 초고압 케이블과 광케이블, 광섬유 같은 전력과 통신의 기초소재에서부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턴키베이스 공급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LAN, CATV시스템 같은 컴퓨터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비롯해 커넥터, 리드프레임 산업용 고무 및 알루미늄 합금 등 비전선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며 전선사업에서 축적된 기술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현재는 20%에 그치고 있는 소재 부품, 시스템과 같은 비전선분야의 사업비중을 오는 2,000년까지 광케이블과 초고압케이블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케이블을 중심으로 전선사업을 개편하고 수출과 현지생산을 통해 해외 사업의 비중을 늘리는 한편 신규 해외 생산거점을 확보해 전체사업의 30%이상을 해외 사업에 치중할 계획이다. LG전선은 또 산업용 고무, 고무타일, 알루미늄 합금 같은 산업용소재와 커넥터, 리드프레임 같은 부품사업과 CATV시스템, 네트워크, 무선동축시스템, 통합배선 시스템 등 정보통신시스템 사업의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사업 구조 조정으로 성숙기 산업에 접어든 전선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 2도약을 마련하는 세부적인 사업전개 방향을 최근 발표했다.

1973년 국내 최초로 지통신케이블을 쿠웨이트에 수출하면서 시작된 LG전선의 통신사업은 1990년 세계 최대의 통신케이블 수출업체로 발돋움시켰다.

1984년에는 미국 AT & T와 공동으로 금성광통신을 설립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광케이블을 생산해 이듬해인 1985년에는 광섬유를 미국에 역수출하는 개가를 올리는 한편 1988년에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서울 올림픽에 CATV 시스템 공급자로 선정되어 성공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며 LG전선의 기술력을 세계에 과시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통신케이블의 수요가 줄고 통신사업 자유화, 초고속 정보통신망사업의 민간 참여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LG전선도 이 분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동케이블 생산 중심의 사업구조를 종합 정보통신 사업 분야로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LG전선은 현재 정보통신부문의 총 매출 2,000억원중 전체 매출의 7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동케이블과 광통신케이블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오는 2000년에는 동통신케이블 20%, 광케이블 30% 등 케이블 부문의 매출을 50%이하로 낮추고 CATV, 무선동축시스템 같은 비전선정보통신부문의 매

출을 5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와함께 회사 전체 매출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문을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해 2000년에는 전체 매출의 25%인 4,500억원을 달성해 이 분야의 비중을 점차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전선은 회사내에 ISH(Information Super Highway 초고속정보통신망) 위원회를 설치하고 네트워크 하드웨어와 LAN, IBDN 등 시스템 통합부문의 시장참여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LG전선은 또 현재 연간 7조원에 달하는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장 규모가 98년 이후에는 10조원을 넘는 거대 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되면 해외 선진 업체와의 경쟁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통신선로 및 관련 제품의 턴키 공급능력을 기반으로 공중 통신 시스템 사업을 다각화하는 한편 생산기지의 해외이전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LG전선은 이밖에도 민영화, 지방화시대에 대비해 공사 및 엔지니어링 분야를 강화하고 통신선로, 선로 관련 부품 및 전송기기분야의 핵심 하드웨어 사업을 기반으로 엔지니어링 공사, 유지보수분야로의 사업확대를 통해 고부가가치의 정보통신시스템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